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26호

공동성명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수사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김현수 칼럼

손흥민을 만드는 방법?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 현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데스크 시각... 정부 단체 가정 학교 함께 해결해야

스포츠계도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김미경 서울신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올해 하반기 4개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 시행

올 하반기 시행하는 4개의 '체육인 복지 지원금' 무엇?

동규 노컷뉴스기자

학교운동부 점검해 인권침해 예방하고 제주도교육청과 정책도 마련...

전국 첫 학생 운동부 인권침해 점검... "보호받는 것 같아요"

강인희 KBS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긴급토론회

손축구아카데미 스포츠 폭력 사건을 통해 돌아본 아동·청소년 스포츠 인권의 현 주소

일시 2024.07.04.(목) 오후 2시

장소 스페이스엠 (홍대입구역)

중계 문화연대 유튜브 채널 youtube.com/@culturalaction

사회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발제 손축구 아카데미 스포츠 폭력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희준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집행위원

토론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종우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팀,
언론인, 체육교사등

주최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많은 참여바랍니다.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최근 손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3월 훈련 중 손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는 아동들에게 엎드려뺨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를 가격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과 폭언이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계의 폭력 종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손축구아카데미의 지도자들은 해명문을 통해 코치와 선수 간에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된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에서의 가해자들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인권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아동들과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도자는 결코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 어찌 이들이 체벌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내기나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더욱 분노스러운 지점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 폭력에서 지도자들이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훈련 과정에서 쌓아온 친밀감 때문에, 많은 스포츠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다른 사설 축구 아카데미에서 비슷한 아동학대가 없으리란 법이 없다. ‘손흥민 신화’에 가려,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아동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스포츠 폭력을 묵묵히 참고 있을지 모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어린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축구를 즐길 권리가 있다. 축구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란 이유로, 아동들이 크고 작은 폭력을 감당해야하는 문화와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손축구아카데미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관계당국은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하나. 대한축구협회 및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설 축구 아카데미 내 스포츠 폭력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라!

2024. 7. 1.

[김현수 칼럼] 손흥민을 만드는 방법?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모든 유소년 스포츠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아동이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없애고, 아동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만든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에서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스포츠 정신이 아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동의 스포츠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에게 스포츠는 오로지 승리만을 추구하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

최근 유소년 축구아카데미에서 벌어진 폭력과 폭언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형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지상주의에 매몰된 기성세대의 욕망이 낳은 비극으로 보인다. 요즘 아동은 기성세대가 대신 꾸어주는 '꿈과 희망'이라는 그릇된 욕망에 갇혀 스포츠를 직업적 수단으로만 배우고, 혹독한 훈련과 희생이 스포츠의 본질로 왜곡된 채 스포츠를 만나고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스포츠계의 그릇된 인식이 이번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가해자가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적절한 변명을 통해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아동학대는 그가 말한 '시대' 이전에도 이미 국제적으로 당위성 없는 언행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 스포츠 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과는 달리 구타와 폭언이 있을 수 있다는 착각도 문제다. 더욱이 지도자와 부모가 서로 합의만 보면 이 모든 것이 용인된다는 발상도 문제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스스로가 권리를 가진 주체이자,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인격체이다. '사랑이 전제된 언행'은 스포츠에서 자발성을 끌어내는 동기부여와 발전에 대한 격려에 관한 것이라야 하지, 결코 폭력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매'라는 것은 가해자의 착각일 뿐 피해자의 기억에는 상처가 될 뿐이다.

훌륭한 선수를 길러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또 다른 선수를 육성하겠다는 사명감과 포부는 손웅정 감독을 빛나게 했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기대하는 바도 크다. 하지만 그 경험이 혹사와 폭력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이 벌어진 학교 밖 스포츠 아카데미는 이미 여러 번 관리의 사각으로 지적된 바 있다. 2011년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수 안투라지 윤리강령(Guidelines Conduct of the Athlete Entourage)」에서도 스포츠 영역이 확대되고 상업화되면서 늘어나는 위법 행위로 인해 아동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경고하고, 아동의 스포츠 활동에 관련된 안투라지, 즉 선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교육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행위 등이 확인될 시 과외교습의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학교 운동부가 학교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생긴 체육교습행위에 대한 관리의 사각을 없애기 위해 법상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를 포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폭력이 수반된 훈련은 유소년 선수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가로막는 것에 불과하다.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은 동물을 길들이는 방식에 다름 아닌 야만의 결과다. 스스로 존엄한 스포츠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스포츠계도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같은 반에 양궁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체벌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연습에 매달렸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고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한 그는 따돌림을 당하다가 전학을 가 버렸다. 고등학교 같은 반에는 농구부 친구가 있었다. '팬클럽'이라는 선배들의 괴롭힘 속 패싸움에 연루됐고 음주에 빠졌다가 농구부가 해체되면서 갈 곳 없이 떠돌며 '문제아'가 됐다.

스포츠 취재를 맡은 뒤 체육계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게 됐다. 특히 선수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 폭력, 약물, 도박 등 일탈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은 '공인'이라는 선수들의 행동이 일반인보다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터다. 올해 들어서도 야구, 축구 선수들의 음주운전과 마약, 불륜, 가정폭력 등이 불거져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사건이 터지면 선수는 "반성하겠다"만 되풀이하고, 구단과 단체는 출장 정지와 계약 해지, 방출 등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만난 스포츠 마니아인 지인은 더이상 야구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영원히 야구를 사랑할 것 같았던 그는 "성폭력 등이 난무하는 야구계의 관중석을 떠났다"며 "인권이 무시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일갈했다. 올해 관중 500만명을 넘어 1000만명도 간다고 좋아하는 야구계가 새겨들을 일이다.

최근에는 국가대표 출신 피겨 선수 두 명이 해외 전지훈련 중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선수를 불러 성추행한 뒤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은 혐의로 3년과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또 징계 선수들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징계받은 선수 중 한 명 측은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반면 피해자 측은 "당시 많이 당황하고 놀라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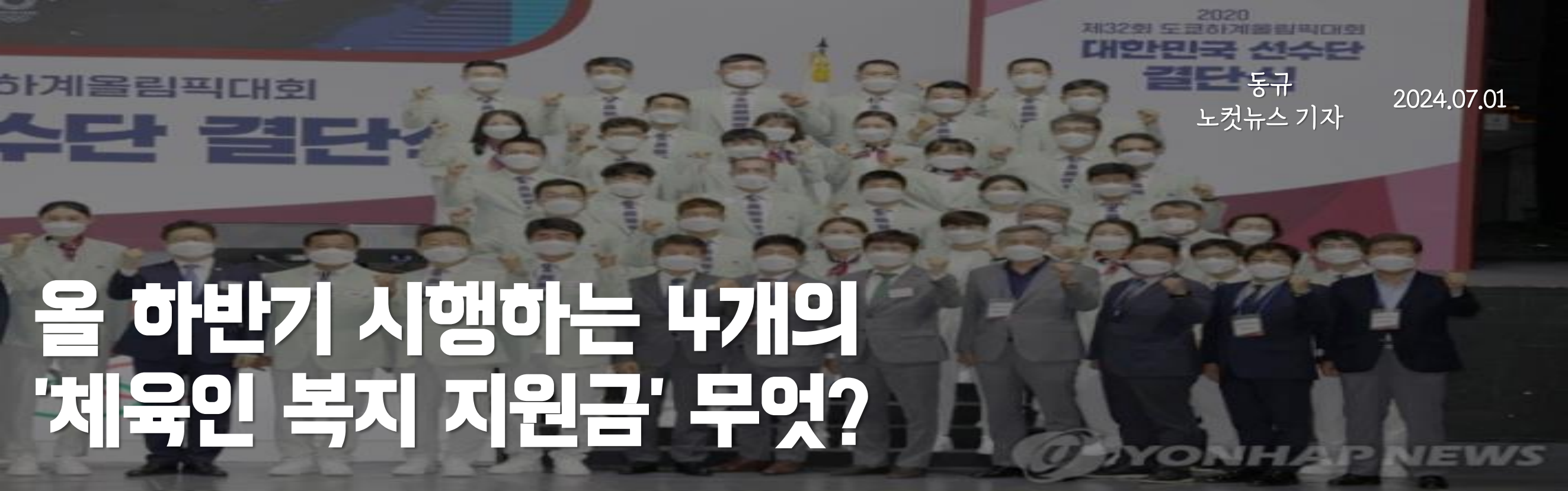
초등학생의 '선망 직업 1위'라는 스포츠인의 높은 도덕성과 자기 관리, 책임 있는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주체는 선수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탈과 비위는 단지 이들만의 문제인가. 필자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과처럼 학교에서의 문제는 없었을까. 가정과 학교, 단체, 선수촌 등에서 가족과 교사, 친구, 감독, 동료 등과의 관계는 어땠고 지금은 어떠한가. 주로 10대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며 성과에 치중해야 하는 이들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누가 어떻게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격과 인성, 인권, 양성평등 교육을 가르칠 것인가.

빙상연맹은 최근 사태 직후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선수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 든다. 또 '고 최숙현 사건' 후 폭행 등의 재발 방지와 징계 강화를 위해 2020년 8월 정부 산하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진 스포츠윤리센터에만 맡길 일도 아닐 것이다.

오는 26일부터 새달 11일까지 2024 파리올림픽이 열린다. 축구 등 구기 종목의 올림픽 진출이 불발되면서 역대 최소 선수단 참가 등 우울한 소식도 들린다. 물론 메달도 중요하겠지만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만큼 정정당당하게 겨뤘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간 예산·조직 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밥그릇 싸움이나 임기 연장 등 사적 이익이 아니라 스포츠계의 인권 및 비위 문제 해결, 신뢰 회복을 위해 문체부와 체육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스포츠 취재를 오래 해온 후배 기자에게 해결책을 물었더니 답은 이렇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아프리카 속담)처럼 스포츠계도 정말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시행하는 4개의 '체육인 복지 지원금' 무엇?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올해 하반기 4개의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일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 하반기에 ▲경기력 성과 포상금 ▲국외유학 교육 지원금 ▲국내 대학원 교육 지원금 ▲체육 장학금 등 4개의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을 벌인다.

'경기력 성과 포상금'은 수시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회 입상을 통해 획득한 포상금 점수가 20점 이상인 국가대표 선수에게 점수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대회 입상을 통해 획득한 포상금 점수가 10점 이상인 국가대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에게도 점수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외 유학 교육 지원금'은 이달과 다음달에 신청 공고를 한다. 다음달 대상자 선정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가대표 이력이 있는 선수, 지도자 중 국외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어학 시험 및 기준표에 따른 외국어 점수 보유자)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대학 과정의 경우 2~4년, 대학원 과정은 2년,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은 1년 이내다.

'국내 대학원 교육 지원금'은 국가대표 이력이 있는 선수, 지도자 중 국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정규 수업 연한 4개 학기 동안 학기당 300만 원 이내의 등록금을 실비 지원한다. 다음달 신청 공고 후 9월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가 이뤄진다.

'체육 장학금'은 체육회 또는 중앙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상위 입상한 학생 선수가 지원 대상이다. 장애 체육인은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전문학사, 학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오는 10월 신청 공고 후 12월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비용 지급을 시행한다.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관계자는 "체육인 복지 지원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주체다.

대한체육회는 이 사업을 종목 단체에 홍보한 후 대상자를 추천받아 후보자를 선정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고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부연·설명했다.

자료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170130?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701042809

4. 폭력 및 체벌

전국 첫 학생 운동부 인권침해 점검... “보호받는 것 같아요”

앵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윤리보호관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고등학교를 점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주도교육청과 정책도 마련하기 위해선데, 전국 첫 사례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리보호관들이 도내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체육관을 둘러보고, 운동부의 샤워실까지 세심히 살핍니다. 운동부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현장에서 상담할 선수들을 정한 뒤,

["혹시, 내가 먼저 해보고 싶다! 오! 좋아요."]

분리된 공간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야구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있어요? (야구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제주를 찾은 윤리보호관은 10명. 사흘에 걸쳐 고교 운동선수와 지도자 상담, 인권침해 대응법 안내, 시설 점검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확대를 앞두고 지역의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현/스포츠윤리센터 정책실장 : "(학생들의) 고충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훈련장이나 합숙소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미흡한 점 혹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운동부가 있는 고등학교는 17곳 31개 팀으로 선수와 지도자만 500여 명. 학생들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조진호/역도선수/남녕고 3학년 : "선수들 요구사항도 들어 주니까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은 오는 8월 한 차례 더 진행되며 결과를 분석해 두 기관이 함께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우상/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 "이번 기회에 학교 운동부 문화가 좀 개선이 돼서 타 시도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난해 스포츠 인권 비리 실태조사 결과 학생 선수의 경우 언어와 신체, 성폭력 피해를 볼 때 절반 가량이 '무대응'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이번 활동이 건강하게 체육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속보] 갑질 논란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518#google_vignette

순천시 물바다 위에 도서관·체육관 건립 말뚝

https://www.nocutnews.co.kr/news/6170310?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701055410

[단독] 신치용 대표 칼 빼들었나...한국체육산업개발 '징계성 인사'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7010169>

광명시, 광명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 9일 개장

<https://news.tf.co.kr/read/national/2111622.htm>

축구지도자협회 격분 "정몽규 회장, 수장 자격 있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170388>

美 상이군인 체육대회 韓 선수단도 뚝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702010000823>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아인생활체육 어울림대회 개최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070114135656827>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청년 기자단' 뽑는다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455>

경기 북부지역 '체육행정 거점' 내일 문연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70201000006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